

3단월

• CFC에 의해 오존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CL은 촉매로 작용한다.

• 지구 반사율이 증가하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는 감소한다.
(반사율 증가로 덜 흡수하게 되니 방출도 덜 하게 된다.)

• NO -> NO2 -> O3순으로 농도가 최고점을 찍는다.
(보너스로 O3(오존)은 2차 오염물질이다.)

•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 기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 탄소이다.

• 다른 요인의 변화 없이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

• 태양 복사 = 단파 복사(가시광선)// 지구 복사, 대기 복사 = 장파 복사(적외선)

• 산성비는 ph 5.6미만의 산성을 띠는 비를 말한다.
(오염되지 않은 비는 이산화 탄소가 녹아 있어 pH 5.6 ~ 6.5정도의 약 산성비를 댐다.)

• CO2는 기체상 오염물질이다.

• 토양오염은 급성적인 피해보다 만성적인 피해가 크다.

• 육지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쓰레기, 생활 폐수 등에 의한 오염은 해양의 연안이 심하다.

• 우주 안개 분무기는 우주쓰레기의 속도를 감소시켜 궤도를 변경시킨다.

•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에 의해 형성된 표층 해류는 대체로 동서 방향으로 흐른다.

• 지구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다면 표층 순환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일어날 것이다.

• 변환단층 - 맨틀 상승부 x, 맨틀 하강부x

•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 - 아열대 순환 o, 열대 순환x

•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유라시아 판에 위치

(우리나라- 유라시아판, 일본- 태평양판이 아니야)

• 열점 -> 새로운 해양판 생성X

• 남해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연중 수온의 변화가 작아 양식업에 유리하다.

2단원

• P파는 액체인 매질을 통과할 수 있다.

(S파는 고체만 됨. S파-Solid(고체) 이렇게 외우기)

• 용오름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생긴다.

(용오름은 상공과 지표 부근의 큰 기온차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서 생긴 현상이다.)

• 내부 구조를 변형 시키는 사태는 포행과 흐름이 있다.

(속도는 당연히 흐름이 포행보다 빠르죠.)

• 내부 구조를 변형 시키지 않는 사태는 미끄러짐과 함몰이 있다.

•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은 모두 식어서 화산암이 된다.

(지표 밖으로 나와서 식으므로)

• 화산 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다.

• 박리 작용의 주요 원인은 압력 감소이다.

(물의 동결작용 X)

• 천지의 물은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폭발력을 증가시킨다.

(수증기압 머시기 머시기)

•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점점 깊어진다.

(이 외에도 퇴적물의 나이는 많아진다. 같이 암기)

• 보크사이트가 농지된 것은 퇴적 광상에 해당한다.

• 정상석 -> 고령토는 온대 지방 고령토 -> 보크사이트는 열대 지방에서 잘 일어난다.

• 지진 해일은 해안에 접근할수록 속도는 느려진다.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 이 외에도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진다는 사실)

• 겨울철에 중국과 몽골에 눈이 많이 내릴수록 황사의 발생 빈도는 감소한다.

(눈이 모래의 점성을 높여서 황사 발생 빈도를 감소시킴)

• 기압이 가장 낮지만 풍속이 가장 강하다면 태풍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것이다.

• 태풍이 통과하고 나면 수온은 낮아진다.

(이유는 뭐였더라.. 태풍이 지나가며 태풍 부근의 해수면은 높아짐 그래서 다른 쪽으로 표층 물이 이동함. 따라서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 아래의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게 되어 수온이 낮아진다. 라고 이해하셈)

• 만조시간에 태풍이 해안에 도착하면 해일에 의한 피해는 더욱 커진다.

(가득찰 만.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태풍이 와? 피해 장난 아니겠는 걸..)

• 뇌우의 형성단계에서 구름 내부의 온도는 같은 높이의 주변 공기의 온도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달할 수 있겠지.)

• 등수온선의 간격이 조밀하면 수온의 차이가 크다.

• 선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변성암 위에 중생대의 화성암(섬록암)이 봉우리를 이룬다.

(포만한 예평 출제)

• 마이산은 역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성층이다.

(칠성탐 모의고사 출제)

• 당처물동굴(용암동굴)에서도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나타난다.

(석회동굴에 있는 것만 종유석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다.)

• 해식 절벽, 동굴과 같은 곳은 침식 작용이 우세한 곳에서 석영모래, 자갈해안과 같은 곳은 퇴적 작용이 우세한 곳에서 형성된다.

• 공룡발자국은 육성층이다.

• 전북 부안군의 격포리 해안에서는 퇴적암이 형성된 후 지층이 융기하였다.

• 조력에너지와 지구내부에너지를 합한 양은 지구계 에너지의 30%가 되지 않는다.

• 운모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

1단원

• 광물 입자의 크기는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크다.

(화강암은 식을 시간이 충분하니 결정의 크기가 크다. 하지만 급하게 식는 현무암은 식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 흑연과 석영은 비금속 광물이다.

• 제주도 수월봉의 줄무늬는 용암이 흘러 생성된 것이 아니다.

(단지 퇴적되어 생긴 것)

• 점토 광물과 산화철이 많은 층은 심토이다.

• 마이산의 타포니는 북쪽보다 남쪽이 많다.

(칠성 모의고사에 출제하려다가 안한 선지입니다.)

• 햇빛과 태양 전지판이 수직일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 태양 전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이다.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아님.)

• 해안 단구 -> 용기의 증거(16/9평 출제)

(이게 9평에 출제되었으니 수능에선 침강의 증거가....)

• 리아스식 해안, 다도해 -> 침강의 증거

• 고체 상태의 물(빙하)는 수권이다.

• 금성의 평균 표면 온도가 수권의 평균 표면 온도보다 높다.

• 내핵의 밀도가 외핵의 밀도보다 큰 주된 이유는 압력이 높기 때문이다.

• 성층권에서 오존 농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높은 것은 아니다.

• 우라늄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 수자원에 있어서 지하수>하천수 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하천수>지하수이다.

• 망가니즈 단괴는 퇴적물의 공급이 활발한 곳에서 잘 성장하지 않는다.

(퇴적 작용이 활발한 대륙붕과 같은 곳에서는 망가니즈 단괴 발견 못함)

• 파력에너지, 조력에너지 모두 해양 에너지이다.

• 정상석이 화학정 풍화를 받아 고령토가 된다.

• 지하수에도 담수와 염수가 있는데 지하수 염수가 더 많다.

• 화성암은 대부분 중생대에 형성되었다.

• 사구, 석호, 해안 단구는 동해안에 잘 발달해 있다.

This

is

the

~~END~~

BY  KWANG HEE HAN
